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1. 마조의 심외무불(1)

바람이 거세니 나뭇잎이 자주지고
風剽葉頻落
산이 높으니 해가 쉽게 가리운다
山高日易沈
좌석 가운데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坐中人不見
창밖엔 뭇개뿔이 흰 구름 질어라
窓外白雲深
-장령탁 <선문연승> 5권 159책 '죽심'

"스님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무상대도를 구원하라 하겠네."

마조도일은 능수능란한 반어적 기법 사용
부정 공격엔 '卽心卽佛' 긍정법으로 방어
긍정에 안주하면 '非心非佛' 부정법 사용

어느 날 마조에게 한 학인이 물었다.
"스님께서서는 어찌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까?"(和尚爲什麼說心卽佛)
"우는 아기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지."(爲止小兒啼)
"울음이 그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하지."(非心非佛)
"그럼 이 두 가지 외에 사람이 와서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그런 사람에게는 물건도 아니라고 하지."(向伊道不是物)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지금 자네의 뜻은 무엇인가?"(卽今是什麼意)
"어서 방은거사가 물었다.
"물은 빠도 힘줄도 없이 만곡의 배를 이겨내는데, 그 이치는 어떤 것이지요?"
"여기는 물도 없고 배도 없다. 그런데 무슨 힘줄과 배를 말하는가?"
龍居土問 如水無筋骨能勝萬斛舟 此理如何 師云 這裏無水亦無舟 說什麼 筋骨

<경덕전등록>제6권 '강서 도일선사'
앞 선화에서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이 긍정과 부정을 돌이키는, 얼마나 반어적인 기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장(師長)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확인을 제정 시, 이런 현상대를 초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스승의 간절한 마음을 엿보게 된다. 이것은 6조가 말하는 이항대립적인 36대의 법문을 펼쳐 확인의 의심을 바로 일원적인 통일성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확인으로 하여금 양변견적인 모순을 벗어나 광

구질, 마음의 운행이라 하여 특이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바람이 거세니 나뭇잎이 자주지고/산이 높으니 해가 쉽게 가리운다" 이나 다른 여러 자연이 저절로 풀어놓는 운행, 삶의 자연스러운 운행이 마음의 운행일 뿐이다. 이러한 진대 3행과 같이 "좌석 가운데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는 당연하다. 눈을 눈동자가 보지 못하고, 불이 불동자를, 물이 물체를 알지도 못하듯 "좌석 가운데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이 보임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4행의 "창밖엔 뭇개뿔이 흰 구름 질다"(窓外白雲深)이다. 그 외에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마조 도일은 우는 아이를 위해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 그리고 울음을 그친 아이, 스스로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을 위해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는 부정법을 휘두른다. 이는 6조의 법을 적실히 계승한 증거다. 바로 울을 우는 아이와 같이 부정으로 공격하면 즉심즉불이라는 긍정법으로 막아내고, 울음을 그친 아이와 같이 긍정에 안주한 사람에게는 비심비불과 같은 부정의 진법을 휘두른다.

앞 장령탁의 계승은 마조의 즉심즉불과 비심비불의 시적 형상화이며 마조의 심외무불(心外無佛), 그 자체에 대한 깨우침의 시이다.

*참어: 죽심 비심 즉불 비불 고만고만 하여 들을 만하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

10. 두부김부침전

오늘은 맛도 영양도 좋은 두부를 이용한 요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두부가 전래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송나라와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두부는 주로 사찰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들은 두부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입금의 무덤 곁에는 사찰을 두어 두부를 만들고 제수(祭)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

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두부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잔치상이나 제사상에나 오를 만큼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 함유된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사포닌(saponin)은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콩에는 인지질이 약 1~3%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기능 향상과 노인성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축적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연구가 활발한 대두 속의 이소플라본(isoflavone)은 에스트로겐(estrogen)활성과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스님들의 단백질 공급원

치매 예방·항암 효과 등 영양 만점

두부는 다른 문화적 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친 뒤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두부 중에서 가장 맛있고 전통 있는 두부를 들자면 단연 고지시의 당인두부를 꼽는데, 이 당인두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임진왜란 때 납치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던 경주성장 박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통이 있고 영양가 또한 높은 우리나라 두부는 근래 들어 국제

플라본(isoflavone)은 에스트로겐(estrogen)활성과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 많은 두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발달과 어른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 골다공증 예방 등에 좋아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두부김부침전은 북한의 사찰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음식입니다.



두부김부침전

재료: 두부, 김, 깨소금, 녹말, 들깨잎, 소금

만드는 법

- 1. 두부는 얇은 천에 싸서 물기를 약간만 제거하고 뚜껑에는 다져놓는다.
2.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두고 두부는 으갠 다음 다진 들깨잎과 깨소금, 소금을 넣어 섞는다.
3.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을 한 장 올린 후 김 위에 녹말 물을 얇게 바른다. 그 위에 김을 한 장 더 놓고 또 다시 녹말 물을 얇게 발라준다.
4. 김 위에 두부 양념한 것을 도톰하게 올린 후 고르게 쪄준다.
5. 두부 위에 녹말 물을 얇게 펴 바르고 김을 올려놓는다. 김 위에 녹말 물을 바르고 다시 김을 올려준다.
6. 앞뒤를 뒤집어 가면서 고르게 익힌 후 먹기 좋게 썰어 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상업주의에 오염된 '삶의 정화'

박몽구는 1977년 월간 <대화>지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십자가의 꿈> <자그마의 뒤편>과 함께 <개리카를 들으며> 등의 시집을 냈다. 그는 등단부터 현재까지 시집의 방향을 고수해온 시인이다. 그는 수년전부터 시에 음악을 제재로 가져오거나 구체적 인물을 인용하여 상업적 자본주의에 처한 자신의 심정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찰을 순례하면서 쓴 시편들에서는 자아의 성찰과 함께 더러워진 세상살이를 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편편한 아스팔트길 비렸을 때/비로소 겨울 억새가 가려진/안자로 가는 길 드러났다/해발 오백 미터 비위 위에 앉은/산사로 달는 지름길/산동성상에 뱀처럼 걸터앉았지만/주지 수관 스님은 빠른 걸음 버리고/세배나 먼 길로 돌아오라고 한다/
산사의 불빛은 먼 별처럼/종처럼 울려지 않고/산진승들의 반가운 울음이 들리고/아! 절 마당으로 달는 한 가닥 길/까끄러운 속살처럼 보일 듯 말듯 드러났다/
지름길 놔두고 굽이굽이 먼데로 에둘러/산사로 달는 길 달는 사정을 배이리기 어렵다/ 새벽 해발 때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이명의 어둠 속에서/지현명 맞은 나는/당장 눈앞에 희망의 꾸러미 내놓으라는/이런 말에 난감해 하는 부처의 모습이/안쓰럽게 훑발 너머에 이르렀다/새벽 산비림이 어리석은 사람을 일으켰다 - '정취에 가서' 4' 전문

마음의 귀
박몽구 | 시와에세이 2006 | 8,000원



시작 의도.

박몽구는 선암사를 다시 찾아가서 동화작가 故 정채봉과의 기억을 되살리기도 한다.

이들은 제비들이 동지를 틀고 있는 선암사 냇물 서까래와 단청을 보며 흐린 눈이 맑아졌다고 한다.

몇 년 만에 선암사를 다시 찾았다. 한창 일이 빠지 시작한 참으로 출가처를 낀 산문에서 승선교에 이르른 길 더듬은 끝에 평범나무 향기 진동하는 절 마당에서 정채봉 선생과 생전에 함께 했던 기억의 갈피를 뒤적거리려 본다. 세 시간 남짓 송파사 뒤쪽으로 조계산 자락에 올라 사찰 대신 제비들이 동지틀 틀고 절집의 냇물 서까래며 벗겨진 단청을 보며 우리는 흐린 눈이 맑아지는 순간을 맛보았다 - '선암사 월명나무 그늘' 부분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대웅전 원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연승 1-10권 : 105,000원 (30%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선가계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슬레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보인)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냐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지의 근거리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대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